

佛 과학자들, 과학연구축진 탄원

글_ 함혜리 대한매일 기자 lotus@kdaily.com

기 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기반이 튼튼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과학자들이 자국의 과학연구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과학연구 축진을 탄원중이다.

프랑스의 저명 과학자 수십명은 최근 인터넷에 과학연구 지원을 촉구하며 동료 과학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띄웠다. '과학연구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이 탄원서에 서명한 과학자는 3만 8천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 총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셈이다.

과학연구 축진 탄원서에 1/3 이상 서명

탄원서를 띄운 과학자들은 동료 과학자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높은데 고무돼 일반인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 서명 코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탄원서를 띄운 과학자들 중에는 악셀 칸 코생연구소장, 장 드니 비뉴 과학자문화 부의장 등 저명한 과학자들과 전국 각지 연구소장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프랑스에서 과학연구를 위한 공공 예산과 민간 기금이 축소되고 과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과학연구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과학연구축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올해 예산에서 과학 연구비를 동결하고 연구직 550명을 계약직으로 대체했다고 비난했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기술 인재들이 미국, 영국 등으로 떠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직 수가 줄어들면서 취업난을 고려한 학생들은 이공계를 기피하며 결국은 프랑스의 과학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악셀 칸 코생연구소장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연구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젊은 과학자들을 연구소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프랑스가 이룬 발전의 절반이 연구개발의 결실이었지만 국가는 이에 걸맞게 과학자들을 대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소를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릴 대학 생물학과의 모리스 포르세 교수에 따르면 1995~96년 학기에 이공계 진학생은 6만3천 명에 이르렀으나 2003~04년의 경우 4만4천 명에 불과하다. 몇몇 대학의 물리학과는 학생이 없어 학과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르세 교수는 “국제적인 연구개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으며 기술발달의 속도는 국가의 투자와 비례한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직이 줄어들면서 취업난을 부추겨 유능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몇몇 대학은 이공계 학과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 시위하는 프랑스 과학자들

유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실 견학을 추천하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수학과 기초과학의 경우 지원자가 전체에 비해 1천300명(10%)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속된 투자감소로 연구기반 붕괴 우려

프랑스 과학자들은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 예산에서 GDP 중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22%에서 1997년 2.37%로 높아진 이후 1999년 2.31%, 2001년 2.20%로 낮아지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일본은 GDP의 3.09%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미국은 2.82%, 독일은 2.49%를 투자했다.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프랑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높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는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9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의 과학연구논문 발표비율을 보면 미국이 36.3%, 일본 10.6%, 영국

8.8%, 독일 8.3%인 반면, 프랑스는 6.1%에 그쳤다. 같은 해 세계 특허는 미국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독일(20.6%), 일본(17.6%) 순이었으나 프랑스는 7.1%에 불과했다.

과학자들은 인터넷 탄원에 이어 지난 1월 29일에 정부에 과학연구기반 확충,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리와 지방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공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의 노조원과 '과학연구를 구함시다'의 회원 등 수천 명은 파리 쥐시외 대학에서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 관사까지 정부에 과학연구 지원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과학자들의 시위는 2월 5일에도 계속됐다.

'과학연구를 구함시다'의 대변인인 알랭 트로트만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연구소장은 "과학자들의 집단 사퇴 경고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3월 9일까지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으면 이 단체 발기인들은 집단 사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같은 과학자들의 탄원에 대해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우리 나라에서 공공 과학연구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과학연구 정책과 재원 관리를 개선하는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글쓴이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프랑스 언론정보 연구소(IFP) 석사. 현 대한매일신문 파리특파원